

NHIS Daily

Morning Line

2014.7.24(목)

NHIS Research Center

- ▶ 국내 시황 및 오늘의 투자전략
- ▶ 해외 증시 동향
- ▶ 오늘의 경제지표
- ▶ 오늘의 채권시황



Morning Line

이아람 선임연구원 02)2004-4790, aram@nhis.co.kr

주식시장

	전일 증가	변동폭	등락률
KOSPI	2,028.32	-0.61	-0.03
KOSDAQ	563.14	-1.79	-0.32
KOSPI200	262.56	-0.30	-0.11
DOW	17,086.63	-26.91	-0.16
NASDAQ	4,473.70	17.68	0.40
S&P500	1,987.01	3.48	0.18
상해종합	2,078.49	3.01	0.14
NIKKEI225	15,328.56	-14.72	-0.10

주요지표

	전일 증가	변동폭	등락률
국채3년	2.48	-0.04	-1.47
미국국채(10년물)	2.47	0.01	0.22
원/달러 환율	1,023.78	-0.77	-0.08
원/100엔 환율	1,008.84	-0.01	-0.10
WTI	103.12	-1.30	-1.24
BDI	727.00	4.00	0.55
금	1,306.50	-1.50	-0.11
로저스 농산물지수	1,007.04	5.07	0.51

국내 시장 및
오늘의 투자전략

전일 KOSPI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도가 공방을 벌인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배당확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증권과 건설주가 동반 급등한 반면, 원화가 재차 강세로 돌아서면서 IT와 자동차 관련주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증권, 음식료, 건설 업종 등이 KOSPI 수익률을 상회했고, 운수창고, 전기전자, 비금속 업종 등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했다. KOSPI가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하면서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며 강한 상승은 쉽지 않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KOSPI 박스권 상단을 높이는 시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일은 한국 2분기 GDP 성장률,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세월호 사고 여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을 감안 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 우려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반영되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 개선세가 이어지며 중국 경기 정착률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기에 민감한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전략은 중국 경기와 민감한 화학, 철강 업종과 정부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 증권, 유통 등 업종에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다.

국내 수급 특징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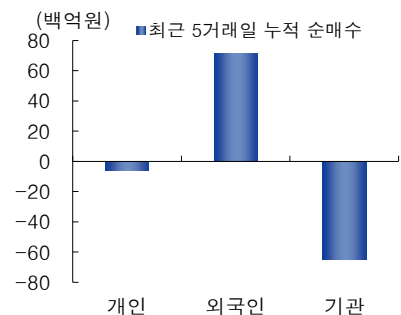
- 개인 -576억원, 외국인 1,328억원, 기관 -667억원

[KOSDAQ]

- 개인 -250억원, 외국인 1,342억원, 기관 -1,011억원

[선물]

- 개인 259계약, 외국인 -330계약, 기관 -60계약



해외 증시 동향

새벽에 끝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헬스케어주와 기술주가 상승하며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지수도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페이스북 웹시, 텔타항공, AT&T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식시장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트기 2대가 격추됐다는 소식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된 지상군 공격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rning Line

김환 Economist 0212004-4761, hwan.kim@nhi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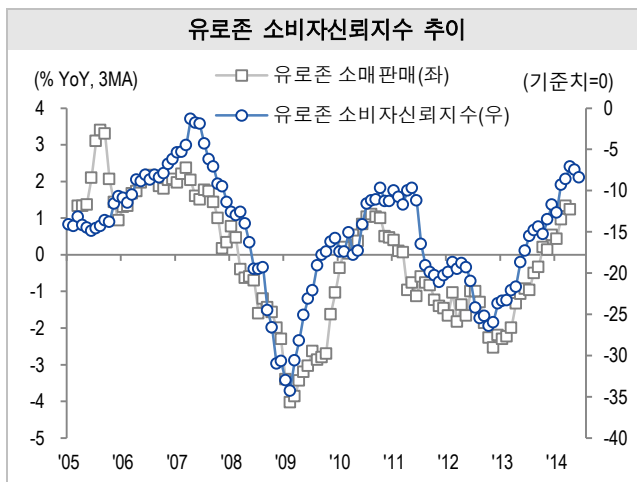
경제 지표

[유로 7월 소비자신뢰지수] -8.4 ← -7.5, 시장 예상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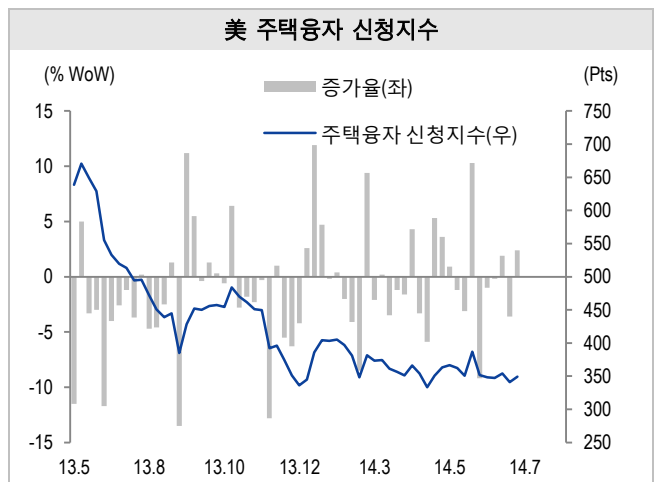
- 7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8.4로 예상(-7.5)을 하회했고, 2개월 연속 하락.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속도가 부진해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실제 소매판매 역시 개선속도가 둔화될 가능성 높음

[美 7월 3주 주택용자 신청지수] +2.4% ← -3.6%(WoW)

- 지난주 미국 주택용자 신청지수는 전주대비 2.4% 증가해 1주 만에 증가 반전. 세부적으로 신규매입용 및 차환용 지수 역시 모두 증가 기록.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용자 신청이 감소한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 그러나 최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향후 주택 수요의 반동을 기대



자료: Bloomberg, NH농협증권



자료: Bloomberg, NH농협증권

Economic Table

날짜	발표 지수	14.1월	14.2월	14.3월	14.4월	14.5월	14.6월	14.7월	컨센서스
7/23(수)	유 7월 소비자신뢰지수(A)	-11.7	-12.7	-9.3	-8.6	-7.1	-7.5	-8.4	-7.5
7/24(목)	한 2Q 실질 GDP(% YoY)	-	-	3.9	-	-	-	-	3.7
	중 7월 HSBC 제조업 PMI(P)	49.5	48.5	48.0	48.1	49.4	50.7	-	51.0
	유 7월 제조업 PMI(P)	54.0	53.2	53.0	53.4	52.2	51.8	-	51.7
7/25(금)	미 6월 내구재주문(% MoM)	-2.5	2.6	3.7	0.9	-0.9	-	-	0.5
	독 7월 IFO 기업환경지수	110.6	111.3	110.7	111.2	110.4	109.7	-	109.4
	일 6월 소비자물가(% YoY)	1.4	1.5	1.6	3.4	3.7	-	-	3.5

주: 음영은 시장 컨센서스,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NH농협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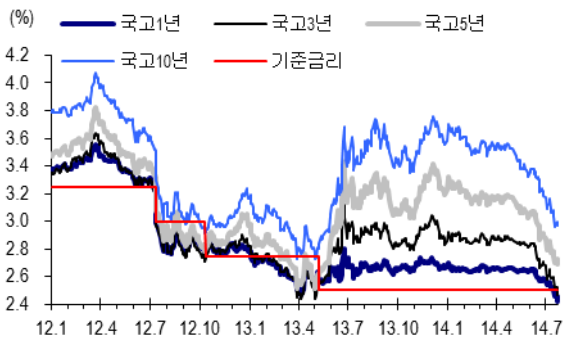
Morning Line

김지만 Fixed Income Analyst 02)2004-4421, jmk@nhi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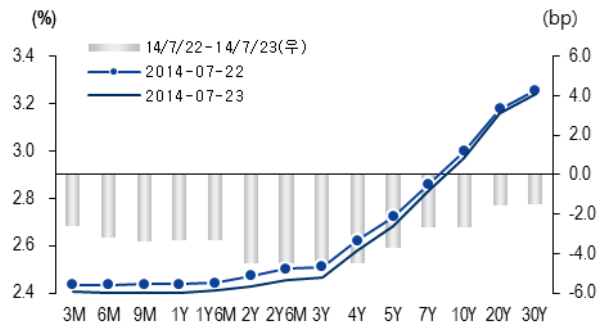
채권시장 현황 및 전망

전일 채권금리는 하락 마감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은 2.464%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장중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강조함에 따라 채권금리 하락폭이 커졌다. 금리인하 폭이 25bp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는 잔존할 것이다. 채권금리 하락세는 8월 금통위를 넘어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장기물 중심의 듀레이션 확대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7/23일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411 계약을 순매수 하면서 누적 미결제 규모가 8만 4,602 계약을 기록하였다. 국고채 10-3년물 스프레드는 50.6bp로 2.4bp 확대되었으며, 회사채 AA- 신용스프레드 역시 41.9bp로 전일 대비 0.4bp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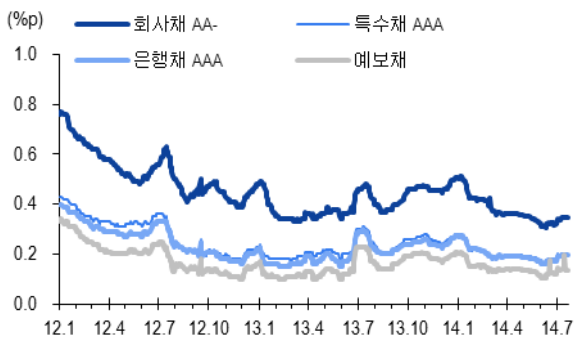
정책금리와 만기별 국고채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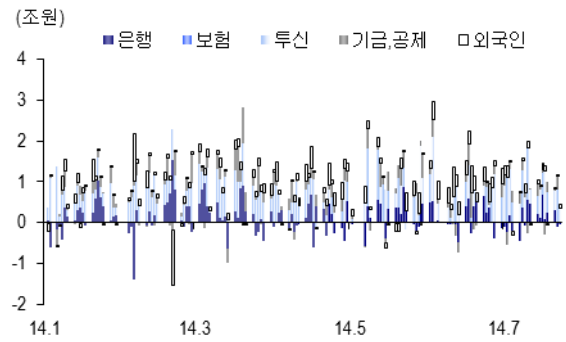
국고채 만기별 금리 등락 폭



신용스프레드



기관별 채권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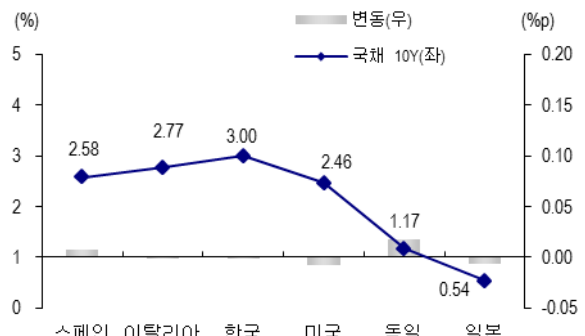


국채선물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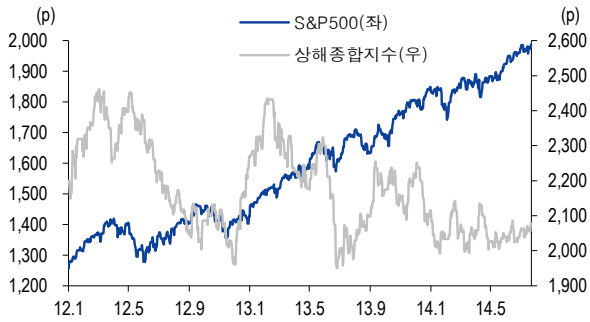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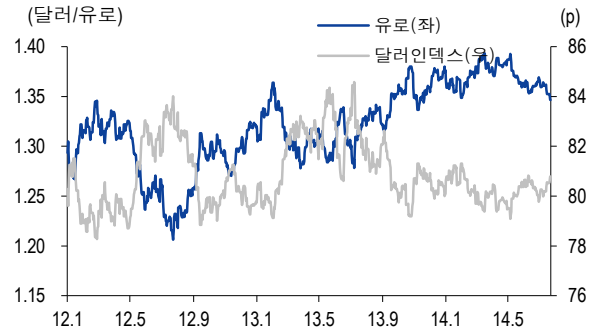
Morning Line

S&P 500 · 상해종합지수



자료: Bloomberg

유로 ·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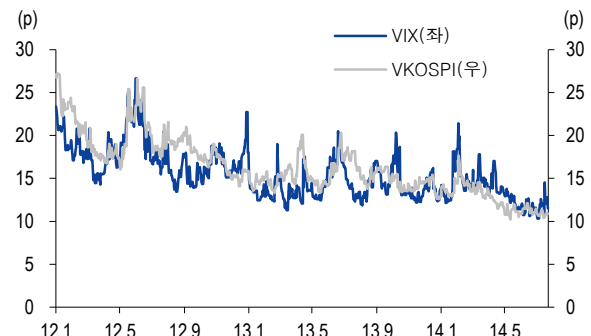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남유럽 주요국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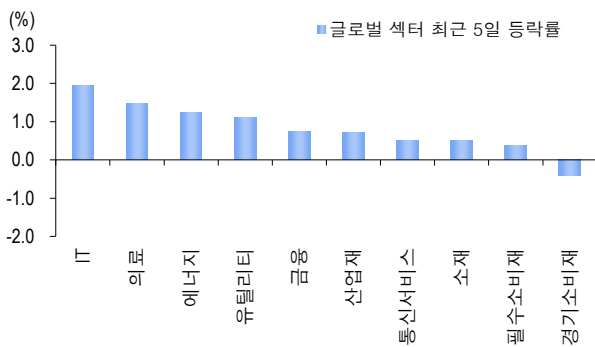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 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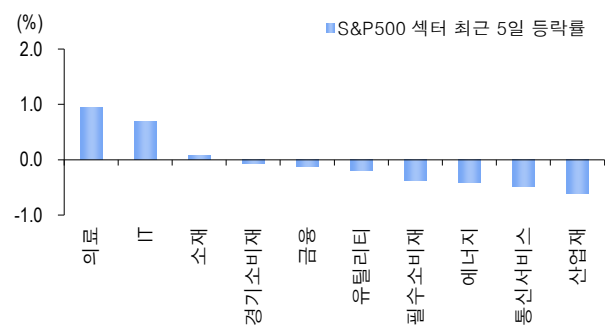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글로벌 업종별 등락률



자료: Bloomberg

S&P 500 업종별 등락률



자료: Bloomberg